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민주주의 회복 촉구 결의안

(추연호 의원 대표발의)

| | |
|----------|-------|
| 의안 번호 | 8-601 |
|----------|-------|

발의년월일 : 2021. 3. .

발 의 자 : 추연호 의원 외 20 명

1. 주 문

- 안산시의회는 미얀마 군부의 쿠데타를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 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하며, 미얀마 전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군경에 의한 무차별적인 유혈 진압 및 폭행 등 인권 유린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쿠데타 과정에서 구금된 정치인 등의 즉각적인 석방을 요구하며, 대한민국 정부가 미얀마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국제사회의 공동 대응과 협력을 강화할 것을 촉구 함.

2. 제안이유

- 미얀마 군부는 2021년 2월 1일, 쿠데타를 일으켜, 아웅산 수찌 국가 고문 등 미얀마 정부 인사들을 구금하고 1년간 비상사태를 선포하였으며 이에 항거하며 미얀마의 민주화를 요구하는 국민에게 무차별적인 발포와 폭행, 납치 등 유혈진압을 통한 인권유린을 자행하고 있음.
- 이에 안산시의회는 민주주의를 수호하고자 하는 미얀마 국민의 염원과 의지를 가슴깊이 공감하며 즉각적인 민주적 헌정질서를 회복하고자 군부의 쿠데타를 강력히 규탄하고, 즉각적인 유혈진압 및 각종 인권 유린 행위의 중단, 아웅산 수찌 국가 고문을 비롯한 구금자들의 즉시 석방과 대한민국 정부의 미얀마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국제사회의 공동 대응과 협력 강화를 촉구하고자 함.

3. 참고사항

- 송부처 : 청와대(국가안보실장), 대한민국 국회(국회의장), 외교부(외교부장관), 주한미얀마대사관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민주주의 회복 촉구 결의안

미얀마 군부는 2021년 2월 1일, 지난 해 11월 총선의 부정 의혹을 제기하며 쿠데타를 일으켜, 아웅산 수찌 국가 고문 등 미얀마 정부 인사들을 구금하고 1년간 비상사태를 선포하였다.

이에 항거하며 미얀마의 민주화를 요구하는 국민에게 군부는 물대포, 고무탄뿐만 아니라 실탄까지 무차별로 발포하는 등 총칼로 민주주의를 짓밟고 있다.

지난 50여 년간 무력을 앞세운 군부는 민주화 세력을 탄압하여 권력을 유지해왔고, 1988년 민주화 항쟁과 2007년 샤프란 항쟁 당시에는 남녀 노소를 가리지 않고 무차별적인 학살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군부의 탄압에도 미얀마 국민의 민주주의에 대한 갈망과 희생으로 2015년 총선에서 민주화 세력이 승리하여 마침내 문민정부가 들어섰지만, 5년 만에 미얀마는 군부 쿠데타 및 군경의 유혈진압으로 민주주의가 다시 붕괴될 위기에 몰리고 있다.

군부는 과거와 같은 무력진압으로 다시금 권력을 장악하고자 하나, 그 무엇도 민주주의를 수호하겠다는 미얀마 국민의 의지는 꺾을 수 없을 것이며, 국민으로부터가 아닌 무력으로부터 나오는 권력은 결코 계속 될 수 없음을 깨닫고 시대착오적인 정치권력 쟁탈 행위를 즉각 멈춰야 할 것이다.

이에 안산시의회는 과거 5.18 광주민주화 운동과 6.10민주항쟁을 통해 군부독재에 맞서 국민의 힘으로 민주주의를 지켜냈던 우리의 경험과 민주화 운동 정신의 계승을 통해 민주주의를 수호하고자 하는 미얀마 국민의

염원과 의지를 가슴깊이 공감하고 미얀마 군부의 즉각적인 민주적 헌정 질서의 회복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안산시의회는 미얀마 군부의 쿠데타를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하나, 안산시의회는 미얀마 전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군경에 의한 무차별적인 유혈 진압 및 납치, 폭행 등 인권 유린행위를 즉시 중단할 것과 아웅산 수찌 국가 고문을 비롯한 구금자들을 즉시 석방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안산시의회는 대한민국 정부가 미얀마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국제사회의 공동 대응과 협력을 강화하며, 미얀마 현지 체류 중인 우리 교민의 안전 도모에 최선을 기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안산시의회는 국제사회와 함께 미얀마 국민의 민주화를 위한 노력을 응원하며, 인간의 존엄성을 최고의 가치로 추구하는 민주주의가 승리하는 날까지 지지를 보낼 것을 결의한다.

2021. 3.

안 산 시 의 회